

무역학과 학문의 핵심은 국제상학이다

— 국제상거래 관행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진하는 관건이 된다. —

한 주 섭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



1. 서 언

1960년 이래 한국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표방하여 '무역 아니면 죽음'(trade or die)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소명을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실현하여 왔다. 과거 30여 년에 걸쳐 한국의 경제가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또한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견지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뉘니 하여도 전 산업 수출화를 위한 적시적절한 정부주도형 정책적 발상이 주효하여 왔던 덕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간 각 정부관련기관의 경제전문가와 학계의 경제담당 교수들의 전문적 지식이 총동원되어 산업

조직을 개편하고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관점이 그 실효를 거두게 된 데에서 성공의 근원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적 발상도 기업에서의 생산과 유통을 총망라하는 산업부문에서 고도의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허상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이미 1950년대 중반에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시발점으로 하여 경영교육이 대학의 수준에서 시동하였으며, 그후 여타의 많은 대학이 이에 급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훌륭한 기업가와 경영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경영은 국제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기업 내·외적인 경영실무적 차원의 다

양한 문제를 정부정책적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산과 관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산업체제가 형성되었고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국가경제가 구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은 미증유의 공헌을 하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경상계 학문에서 경제학은 국가의 기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그 실천적 학문으로서 경영학이 뒷받침하여 줌으로써 소기의 산업사회의 기업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적 발상이나 접근방법만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그 실효를 거두는 데는 미흡하며 무역학에서의 '국제상학'(international commerce)이라는 또 다른 학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발상만으로는 실제적으로 국제상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는 학문적 요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사 어느 국가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수요에 대응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적 발상이 산업계에서 수용되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동 산업의 기업가나 경영자가 세계시장을 꿰어보는 경영상의 지략을 터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수출을 위한 무역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국제상거래는 실무관행과 관습에 의하지 않고서는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간의 수출·입 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및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져 무역거래가 완결되는 전 과정에서 국제상거래 실무관행과 관습은 필히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학문분야는 다름아닌 무

역학에서의 국제상학이라는 것이다.

2. 국제상학의 개념

국제상학은 1960년대초 국제상거래가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그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제상거래에 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근원을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보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감각의 학문적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간에 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세계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꾀할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상업회의소 및 국제법협회 등의 국제기구에서 국제상거래에 관련된 각종 국제규칙 또는 협약을 탄생시켰으며 이로써 무역학의 학문적 연구는 급진전되었다. 그후 1960년대에 범세계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의 탄생은 무역학이 국제상학 중심의 독립적 학문으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상학은 국제상거래의 실무관행(practices)과 관습(customs) 및 법리(legality)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상계 학문이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world as one market)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상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전환점에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적으로 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상

계 학문은 국제상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의 학문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학교육과정에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제상거래를 원활히 수행할 국제상거래전문가(foreign trade specialist)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길만이 선진국 대열에서 앞서가는 유일한 방편이 될 것이다.

그간 국제상학은 무역학이라는 일반적 용어로 표기되어 여타의 학문과 혼재됨으로써 그 성격이 혼미 속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불운에 처해 왔다. 무역학이라는 용어의 국어학적 의미가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무역학을 국제경제학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는 국제경영학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학문구분은 국제무역 또는 외국무역으로 해석되는 'international trade' 또는 'foreign trade'는 그 학문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international trade'는 국제경제학을 의미하며 'foreign trade'는 무역 실무 영역을 지칭하는 무역학으로서 경제학 분야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학(foreign trade)을 국제경제학으로 오인하는 일은 없다. 무역학이 국제경영학이라고 해석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국제상학'(international commerce)이라 명명하여 이의 학문적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다.

3. 무역학과의 특성과 교과목

무역학과의 핵심적 학문분야는 국제상학이며 국제상거래에서의 실무관행, 관습 및 법리를

연구하는 경상계 학문임은 앞에서 논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무역학은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적 특성을 가지는 독립적 성격의 학문(independent academic identity)이다. 국제경제학은 경제학의 일 분과이며 또한 국제경영학 역시 경영학의 일 분과이기 때문이다. 국제경제학은 경제학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거쳐 국제성(internationality)에 관한 한층 높은 수준의 경제학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국제경영학 역시 경영학에 기초를 두고 연구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에서는 무역학을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경우도 있다. 국제경제학은 경제학과와의 주요 학문분야이며 국제경영학 역시 경영학과와의 학문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경제학의 학문적 업적이 경제학과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국제경제학의 전문가 역시 경제학과에서 탄생되고 있다. 국제경영학도 마찬가지이다. 도리어 현대적 감각의 경영학에서는 국제성을 띠고 있지 않은 경영학이란 있을 수 없고 경영학은 곧 국제경영학을 의미한다. 현재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 시대에서 경영학을 국내 또는 국제로 구분하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 국내시장도 세계시장의 일부이므로 국내에 국한하는 경영학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역학과에서는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을 그 연구영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역학 연구에서 경제학 및 경영학은 학제간의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위하여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역학과에서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을 연구하는 것은 국제상학의 연구

목적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제간 연구의 일환으로 그 목적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학과의 주된 학문분야는 어디까지나 국제상거래의 실무관행, 관습 및 법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제상학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상계 학문영역에서의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그리고 국제상학의 학문적 특성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경제학은 경제결심(economic decision)을 하는 경제정책가(economic policy maker)를 위한 것이며, 국제경영학은 생산중심의 기업에서의 경영결심(managerial decision)을 하는 경영관리자(top management)를 위한 학문인 데 반하여, 국제상학은 국제상거래에서의 상결심(commercial decision)을 하는 무역전문가(foreign trade specialist)를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영학은 경제성 또는 합리성(능률성 및 효과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발상과 연구대상 그리고 접근 방법도 국제상학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 국제상학은 국제상거래에서 실무관행이나 관습상 상인이 수락하여 온 것이라면 실사 그것이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국제상학에서는 법리적으로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국제상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법학의 학문영역과도 구분된다.

국제상거래에는 그 거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의 거래조건(trade terms)과 절차(procedure)가 실무관행과 관습상 실재한

다. 국제상학은 이에 관한 실무관행과 관습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상거래에서 최적의 조건과 절차를 선택하는 상결심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상학에서의 접근방법은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에서와 같이 창의적인 발상에 의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제상거래에서 실무관행이나 관습상 수락된 개념의 조건이나 절차에서 최적의 선택이 허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목적을 위하여 무역학은 국제상거래를 주연구대상으로 하는 국제상학으로 규정하고 그 교과목(경제, 경영 또는 법학에 관한 것은 지면 관계상 제외하였음을 양해 바람)은 다음의 7대 부문으로 구분된다.

① 국제상거래계약

국제상학, 무역관습, 무역계약, 무역크레임 사례, 상사중재제도론, 국제상거래규칙론, 비엔나 협약, 대외무역법

② 선적, 양하 및 국제운송

국제운송론, 해상운송론, 선화증권론, 복합운송론, 운송서류론, 항공운송론, 운송주선론, 용선계약론, 수출·입통관론, 관세론 및 관세법

③ 무역금융 및 결제

외환거래론, 무역결제론, 화환신용장론, 화환신용장 사례, 무역금융론, 외환시장론, 무역서류심사론

④ 국제운송보험

국제운송보험론, 해상적하보험론, 무역보험론

⑤ 무역상사경영관리

무역상사론, 종합무역상사론, 수출마케팅론

⑥ 국제통상

국제통상론, 국제경제기구론, 국제상거래교섭론, 국제통상법, NAFTA, EU

⑦ 무역영어

초급무역영어, 중급무역영어, 무역영어회화(I), 무역영어회화(II)

위에서 열거한 교과목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는 독립적 성격의 학문분야이며 그 연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원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 많은 연구업적이 집적되고 있고 그 규모도 막대하다.

4. 무역학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와 같이 무역학과는 국제상거래의 실무관행, 관습 및 법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상계 대학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학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따라서 국제경제학 또는 국제경영학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무역학과의 특성과 목적이 혼탁해지거나 바라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학과 학문의 핵심은 국제상학이며 국제상거래의 실무관행, 관습 및 법리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독립학과로서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

필자는 이미 15년 전에 무역학과를 국제경제학과나 또는 국제경영학과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언젠가는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에 통폐합되는 불운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무역학과의 교과목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일변도로 짜여 있다면 위인설관하였거나 무역학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탓일 것이다. 또 대학 무역학과는 국제경제학 일변도로 교과목을 운영하다가 학과명을 국제경제학과로 십수 년 전에 개칭하였고 또다시 국제경제학과와 독립 타당

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지 모르나 최근에 또다시 경제학과에 흡수되고 말았다. 또 다른 한 예는 무역학을 국제경영학으로 규정하여 경영학 중심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학과교수가 한두 분 이외에는 모두 경영학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어서 쉽게 경영학과에 통폐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국제상학의 학문적 개념이 터득되어 있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언젠가는 국제상학 부문의 교육에서 뒤떨어진 대학으로 그 위치가 추락하고 마는 우둔한 결정을 하였다는 후회를 면키 어렵다. 또한 어느 대학에서는 무역학과를 한두 과목의 국제상학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제학 중심으로 운영하여 경제학과로 쉽게 흡수 통합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학과의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그 구성 교수의 성격에 따라서 국제경제학 또는 국제경영학으로 일관하여 온 경우이며 국제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학과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재 국제상거래 전문가를 위한 직종은 너무나 많다. 50,000여 개를 넘는 무역회사, 10,000여 개의 무역대리점, 은행의 국제영업부문(본·지점을 합하여 4,000여 개) 그리고 기타 금융업, 각종 운송업회사, 통관전문직, 상공자원부, 외무부 해외공관의 상무관 등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 천을 넘는 국제상거래에 전문적 실무능력을 갖춘 대학졸업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우수한 국제상거래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상업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타의 많은 대학의 형편은 교과과정의 불비 또는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무역학과 졸업생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무역회사에서의 일이다. 모 대학 무역학과 졸업생을 입사시켜 업무를 맡겼으나 업무 수행 실무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외국어, 특히 영어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역학과 출신을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도리어 영어를 잘하는 영어과나 영문과 출신을 데려다가 현지 훈련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한다. 무역학과의 교수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무역업무를 현지 훈련에 의하여 터득시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 너무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조그만 실수라도 한 번 저지르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대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업계에서 이러한 사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역회사에서 무역업무 처리상 잘못으로 클레임을 당하여 손해를 보는 규모가 연간 수백 또는 수천억대를 넘어서 주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모 은행 지점장이 신용장거래에서 잘못을 저질러 10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10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끔찍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국방부 무기거래 사기사건이나 신한 인터넷서날과 관련된 신용장거래에서 한국의 여러 은행이 수천억대의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음도 대학에서의 국제상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업계가 이러한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에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적정 인력을 배출하지 못한 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있

다고 할 것이며 필자 또한 무역학과 교수로서 그 책임의 일단을 느낀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무역학 교육이 본 궤도를 벗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첫째, 무역학과의 개설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 비하여 일천하고 무역학 담당교수들이 비교 열위의 입장에 있음으로써 올바른 교육지표를 설정하지 못한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무역담당 교수들은 다수를 점하는 경제 및 경영부문의 원로교수가 주도하는 조직 속에서 정당한 의견이 수렴될 기회를 잃어 무역학과의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학의 도입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경영학은 원로 경제학 교수들의 역기능적 관점으로 인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장애적 요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영학과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학과와 소속 대학을 달리하는 조직개편의 결단을 내렸으며, 그 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경제학을 능가하는 학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무역학과도 역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독립 대학으로 조직개편하여 학문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실효를 거두는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학문발전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무역학과는 경영대학이나 경상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들의 의사에 따라 그 주된 학문영역이 변질되거나 침탈당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무역학의 정상적 학문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둘째, 한국의 대학교육제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에서 무역학의 발전이 둔화되어 있

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학과 교수로 임용하기에 적합한 인제가 미국에서 탄생되지 않음으로써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무역학 전공교수가 임용되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반면에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자가 대거 그 자리에 영입되어 무역학과의 특성이 왜곡되었다고 할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경영학이 독립학과로 탄생되기 이전에는 경제학과 상하이 병존하였는바, 당시의 경상계 학문은 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당시의 국제성을 띤 경상계 교과서의 전반은 국제경제학 그리고 후반은 국제상학의 실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경영학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국제상학 전공자들은 도입기에서 성장일로에 있는 경영학으로 그 전공을 전환하였으며, 선발주자로서의 이점을 향유하려 하여 국제상학을 포함한 상학은 급진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국제상학은 그 학문적 존립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의 조지워싱턴 대학의 러터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 자기도 국제상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경영학이 도입되면서 국제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이 그런 형편이었으나 국제상학은 그것대로 독립 학문분야로 존립할 가치가 있으며 국제상학이 학계에서 그 빛을 잃게 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업계는 현재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실토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여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의 산업계를 둘러본 일이 있는 어느 책임자의 경험에서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어느 회사에서 수입할 만한 상품을 발견

하고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중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보내겠다고 하였더니 신용장이 무어나고 반문하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거래 상담은 끝나고 말았다. 신용장을 모르는 자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제상거래 관행의 기초적 지식조차 없는 사람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국제상학에 관한 이렇다 할 교과서가 없으며 동 분야에 전공자로서 1950년대의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널리 알려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국제상학 담당 교수 구득난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학문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도 대학에서 강좌를 얻기란 그리 쉽지 않은 형편에 국제상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도 우수한 대학에서 강의가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도 국제상학이 다시 발전할 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문분야를 개척하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사실을 인식한다면 무역학과는 국제상거래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무역학과는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는 별도의 독립적 특성을 가진 학문분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거교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무역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학문연구가 가능한 '무역대학'(College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무역학은 무역계열일 뿐 경영이나 경제계열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5. 결 론

무역학은 국제상학을 핵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며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혼돈하여서는 안 된다. 무역학은 학문적 발달, 연구대상 및 접근방법에서 특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수요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계의 실사구시의 학문은 사회의 수요에 따라 출현하여 성장하고 또한 폐기되는 것이다.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포화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수요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국제상학 중심의 무역학과와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력투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상거래의 실무관행과

관습 및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관건이 된다.” 무역학을 위하는 길은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여야 할 것이다. ✎

한주섭/고려대 대학원 상학과를 졸업하고 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l Management와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중앙대 경영대학장과 사회개발대학원장, 조지워싱턴대 객원교수 등을 역임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대 국제무역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국제상학: 무역실무』, 『무역관습론』, 『신용장론』, 『무역영어』, 『무역학개론』, 『국제상사중재론』, 『고급마케팅관리론』 등이 있고, 논문으로 “국제시장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